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11, 세그먼트 조사, 야고보서 1장 및 야고보서 1:5-8에 대한 자세한 관찰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부분 조사, 야고보서 1장 및 야고보서 1:5-8에 대한 자세한 관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그먼트 조사에 관해 우리가 말한 내용을 야고보서 첫 장에 실제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서의 표본 조사는 거의 한 부분에 대한 조사의 예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첫 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세그먼트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야고보는 야고보서 첫 장에서 단순히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거의 무작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매우 신중하고 효과적인 구조화 유형이 드러납니다.

이제 다시 단락 제목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본문에 의존하지 않고도 연상을 통해 해당 부분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세그먼트 조사의 핵심은 구조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기본 단위와 하위 단위의 식별, 선형 개발, 분석 및 세그먼트 전체에서 작동하는 주요 구조적 관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우선, 나는 2절부터 4절까지의 첫 번째 문단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네 번째 문단이 시련과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2절부터 4절까지와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6절에는 속임수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1장 1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에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절에서 그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6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속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조를 통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15절까지는 시련과 시험 등의 개념에 의해 서로 속해 있고 실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16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반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속임수를 피하고 지식을 포용한다는 주제.

또한 나는 실제로 야고보서 1장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문단인 15절과 16절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12절부터 15절까지이고, 야고보서 1장 두 번째 부분의 첫 문단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화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따라서 2절부터 15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적어도 시작과 끝에서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연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는 속임을 피하고 대조 지식을 통해 포용하려는 공통된

관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의 이 두 부분, 이 두 부분은 야고보서 1장의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구절과 야고보서 1장의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구절 또는 첫 문단이 해야 하는 한 실제로 서로 연결될 수 있고,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대조해 보세요.

그는 주지 않는다. 그분은 유혹에 책임이 없으시고, 오히려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차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바쁜 차트라는 점을 경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제로는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제가 말했듯이 실제로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4절, 시련을 기뻐하라. 참고로 여기 헬라어 단어는 페리스모스(perisimos)로 시련을 기뻐하며 확고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음 문단 5절부터 8절까지에서 그가 확고부동함의 개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그는 확고하지 못함, 불안정함, 인내하지 않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 즉 지혜를 구하는 일에 변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그는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인내의 개념을 집어 들고, 누가 페이라스몬은 여기서 견디고, 다시 한번 시련의 개념을 집어 들고, 페리스모스는 시련을 기뻐하고, 이어서 인내하는 시련과 유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 그는 시련과 유혹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2절부터 15절까지, 즉 각 문단에서 인내나 굳건함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 있음을 주목합니다.

여기 이 문단 2절부터 4절까지, 이 문단 9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여기 이 문단 12절부터 15절까지에는 인내의 전체 개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15절까지는 인내, 안정성,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공통된 관심과

시련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한 공통된 관심으로 인해 16절부터 27절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혹.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여기서 공통 관심사, 16절부터 27절까지를 하나로 묶는 공통 관심사는 미혹을 피하려는 관심입니다.

여기 이 문단에서 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물론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26절과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했듯이 속임수, 속임수, 속임수를 가지고 있으며 대조적으로 이것을 알고 이 자료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묶는 또 다른 것은 말씀에 대한 공통된 관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18절에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속이라 만일 누구든지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리라.

따라서 다시 한 번 말, 말, 말, 속임수, 속임수, 속임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이 15절과 16절 사이에서 끊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여기 마지막 문단은 야고보서 1장 첫 부분의 마지막 문단이고 야고보서 1장 두 번째 부분의 첫 문단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대조를 포함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 그는 유혹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16절부터 18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화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그는 정말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 특히 말씀의 은사에 책임이 있으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를 주시며 특히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신다고 야고보가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15절까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낸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입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에서 그는 말씀의 실제와 자원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말씀을 행하고 들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온전함이나 온전함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의 첫 부분인 이 첫 부분에서 그가 지혜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기 이 문단, 실제로 22절부터 25절까지에서 그는 말씀의 역할과 말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야고보서 1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지혜가 시련과 유혹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수단이며, 물론 이 첫 번째 부분의 주변 문단에서 요구되는 확고함의 수단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1장의 일부.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가 말하는 말씀과 말씀의 작용, 말씀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그는 지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말은 속임수를 피하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지혜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실제와 자원에 따라 생활하고, 말씀을 행하고 듣는 것을 중시한다면, 속지 않고 오히려 이겨낼 지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조적 관계 측면에서 일반화와 특수화는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련과 유혹과 기만의 성격과 관계를 주목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물론 이것은 12절부터 18절까지의 큰 중심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혹에 관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시련이나 유혹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을 포함하며, 이는 실제로 2절부터 11절까지의 세부 사항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미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미혹에 대하여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 특히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속임수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계속해서 19절부터 27절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것에 관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읽는 데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반복되는 계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는 수단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시련과 유혹에 의해 멸망되기보다는 영적 발전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련과 유혹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고 영적인 발전을 위해 시련과 유혹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속임수의 함정을 피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지혜와 말씀 사이, 즉 야고보서 1장 전반부에서 지배적인 수단인 이 수단과 야고보서 1장 후반부의 지배적 수단인 이 수단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과관계와 입증의 반복, 즉 권유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고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행동 요구 사항에 비해 실제로 금언이나 지식, 무엇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책 전체에서 보았던 두 가지 방식의 대조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소 구체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즉, 실제로 완벽함을 수반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즉 현명함과 안정됨 사이의 대조입니다. 한편으로는 혼란과 분열을 수반하는 현명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합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고 지혜와 믿음을 구하는 사람은 받고, 의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불안정한 사람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의 편에는 낮은 자,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들이 있어 높아지며 견디느니라. 반면에 부자는 굴욕과 죽음을 특징으로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와 듣는 자는 말씀만 듣는 자와 대조되고, 참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헛된 경건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핵심 구절이나 전략적 영역은 우리가 1장 12-18절에서 확인한 주요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며, 거기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화와 특수화의 대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 유혹, 하나님이 주시거나 제공하시는 것, 좋은 선물, 특히 말씀의 선물 사이의 대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12-15절은 그가 2-11절에서 인내와 시련과 유혹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을 일반화합니다. 그리고 물론 19-27절은 속임수와 16-18절의 말씀에 관해 그가 그곳에서 하는 일반적인 진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나는 여기 야고보서 1장에서 그 부분을 볼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다소 미묘합니다.

이런 미묘한 논의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당시의 독자들과 그 문화, 하위문화에서도 익숙했을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에 접근하고 많은 무작위성을 보는 현대 서양 사람들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듯이, 여기에 야고보서 1장의 전반부를 하나로 묶는 이러한 반복이 있고, 야고보서 1장의 후반부를 하나로 묶는 다른 반복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사업은 야고보서 전반부 말씀에 있는 권고의 수단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야고보서 전반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입니다. 야고보서 1장 후반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 12-18절의 돌쩌귀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주시지 않는 것과 대조됩니다. 물론 그것은 세그먼트 전반부의 유혹 주제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를 주셨는데, 특히 야고보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음, 우리는 이전 부분에서 관찰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책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 개관과 야고보서 개관, 서적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그먼트 조사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제임스 1장에 대한 조사를 검토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관찰의 세 번째 수준은 세부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에는 상세한 관찰이나 상세한 분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각각을 살펴보고 세부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각 가능성의 예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상세한 분석의 가능성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구절의 세부 사항을 상세하고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구절을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 구절 전체와 관련된 관찰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절을 절별로 이동하여 절 전체를 관련성 있는 관찰로 만든 다음 절 내의 개별 용어나 구를 관찰합니다.

이제, 상세한 관찰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이 있는 관찰에는 본질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관찰은 우리가 최종 관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용어에 관한 관찰입니다.

분명히 충분합니다. 즉, 개별 단어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제 최종 관찰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의 어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단어의 사전적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가 노래했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보자. 루트는 노래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매우 유용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것을 언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어를 모른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elthon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어근 측면에서 이것이 erxomai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 자체, 즉 단어의 어휘 형태와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파악합니다. 또한, 단어의 굴절. 이제 굴절은 문법적 의미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형태의 변화와 실제로 관련이 있습니다.

문법적 의미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형태의 변화. 따라서 그가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는 노래하다를 나타내는 3인칭 단수, 단순 과거 또는 과거 과거 능동태가 됩니다. elthon의 경우, 이것은 물론 erxomai를 나타내는 3인칭 단수, 부정과거 능동태이다.

그래서, 이것과 우리는 해석을 볼 때 굴절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근, 단어의 기본 어근, 단어의 어미는 그 문법적 의미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변경됩니다.

용어가 문자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까? 또한 두 번째 유형의 관찰은 문법적 관찰입니다. 이것은 문법적 기능, 실제로는 단어나 구의 구문에 관한 관찰입니다. 주어, 술어, 전치사구 같은 것 말이죠.

저는 구문의 문법적 분석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거나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관찰은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루터는 루터 자신의 저서에서 이것을 추적할 수는 없었지만 복음은 전치사에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장의 문법적 특징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심지어 신학적인 의미도 갖습니다. 방금 해석이 문장의 문법적 구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사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a절까지에 나오는 유명한 지상명령인 지상명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실제로 대명령에는 제자를 삼는다는 주요 동사가 하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그것은 단지 한 단어일 뿐입니다. 즉, 제자를 삼다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분사가 옵니다. 실제로, 그리스어에서는 '가다' 또는 '가다'라는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례를 주다, 가르치다라는 두 현재 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a절까지의 대위임령의 문법적 구조는 그 진술의 중심인 주요 쟁점은 제자를 삼는다는 동사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부정과거 분사인 go가 주동사와 어떻게 관련되고, 세례와 가르침이라는 현재 분사가 주동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말했듯이 그 주장의 중심을 가리키며, 대위임령의 다른 중요한 용어들이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한 중심 관심과 관련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자, 최종 관찰과 문법적 관찰에 관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문법 분석에 능숙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영어 능력의 이런 측면에서 다소 약합니다. 물론 당신이 그리스어를 알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어로 작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두 작품, 두 권의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프란시스 브라운(Francis Braun)의 책, BRAUN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책이에요, 프란시스 브라운.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은 English Grammar for Language Students 입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연설의 주요 부분을 실제로 논의합니다.

제가 언급할 또 다른 책은 Harbrace College Handbook입니다. Harbrace College Handbook은 영어 문법에 대한 대학 1학년 입문서입니다. 이는 단어의 활용 문제와 구문, 문장 내 단어나 구의 문법적 기능 문제를 모두 다룹니다.

주어, 술어, 직접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것들 말이죠. 세 번째로 가능한 관찰 유형은 상세한 관찰에서 구조적 관찰입니다. 책 전체의 수준과 전체 부분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구조적 관계가 단락, 문장, 심지어 절에도 존재합니다.

구조를 의식하고 작업 중인 모든 수준에서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항상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문장이나 단락 수준에서요. 또 다른 유형의 관찰은 논리적 관찰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용어나 진술의 논리적 기능에 관한 관찰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용어나 진술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의 유형입니다. 용어나 문장으로 표현되는 의미의 유형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용어나 진술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 all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는 범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포괄적 범위입니다. 일부는 부분 범위이고 어느 것도 배타적 범위가 아닙니다.

또는 예를 들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이는 실제로 범위, 보다 구체적으로 수치적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수치적 범위의 문제를 다룹니다. 아니면 물론 제가 말했듯이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리적 관찰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9장의 한 구절을 여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논리적 관찰의 종류를 주목해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제자들이 묻자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다시 한 번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논리적인 관찰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지나갈 때 첫 번째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만남의 방식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지나갈 때 만남의 방식이 한편으로는 깨우쳤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반면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제 겉보기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실제로는 3절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절에 나오는 이 예상하지 못한 만남은 이 사람의 눈먼 상태를 기회로 삼고, 실제로 예수께서 그를 치료하실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그것은 인식, 즉 예수님의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시지만 이 사람은 소경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물론 그가 이 만남을 반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났거나 사람을 만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표현은 그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이 단어나 문구와 관련된 문제를 식별하는 논리적 관찰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며, 그의 상태의 정도, 태어날 때부터 상태의 정도나 기간, 그리고 해결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태의 성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것은 의문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의문적인 반응, 즉 질문과 관련된 의문적인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묻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그러면 여기서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제한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대안.

그리고 그들의 반응의 초점, 제한된 대안을 제시하는 그들의 질문적 반응은 선택 의지의 문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음, 실제로 무엇보다도 선택 의지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정말, 인간 기관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실제로 제한된 대안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것은 그의 부모이거나 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인간의 도덕적 실패로부터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눈멀음은 인간의 부모나 남자의 도덕적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종의 시간적 수수께끼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관찰입니다. 이 진술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제는 그들이 언급한 첫 번째 대안과 관련이 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누구의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그들은 그의 소경, 즉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며 그의 죄의 결과로 소경이 된 이 사람의 소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이 이 사람의 죄의 결과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가 전생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인생에서 그 죄가 소급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로 인해 어떻게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 3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정적인 거부와 긍정적인 시정입니다. 그는 그것이 아닌 것을 부정적으로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제한된 대안과 가능한 설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것은 그들의 관점을 교정하는 것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문제가 원인이나 인간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실명 원인이 무엇인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눈을 멀게 한 목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인으로 무엇을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의도 측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안하셨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이것들은 우리가 구절에서 할 수 있는 논리적 관찰의 가능한 유형 중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상황에 따른 관찰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찰되는 구절의 요소들과 주변 자료에서 발견되는 것들, 특히 즉각적인 문맥에서 발견되는 것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관찰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절은 우리 구절 바로 앞과 뒤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방법의 다양한 측면에 관련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텍스트에 적용된 예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상세한 관찰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구절 자체를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구절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상세한 관찰 내용을 언급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우 방법론적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저는 본문 전체에 관한 관찰을 시작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관찰로서의 구절은 일반적으로 맥락적이거나 구조적입니다.

본문 전체(이 경우 5절부터 8절)는 바로 앞절과 다음 절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구절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만 조사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십시오. 음, 문맥적 관찰의 관점에서 우리는 1:5부터 8절이 도구 사용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문맥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설명된 증인은 앞 문단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문단 9절부터 15절까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시련과 유혹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일반화와 특수화의 요소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설명, 즉 여기서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의미하는 것은 특정 내용이 주어졌을 때, 적절하게, 즉 시련과 유혹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지혜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는 시련과 유혹, 2절부터 4절, 그리고 다시 9절부터 15절까지의 부와 가난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혜가 수단일 수 있다고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 신성한 선물이 주변 상황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반응에 대한 가능성을 실제로 제공한다고 제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구절 전체를 관찰해 보면, 이것은 구절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5절부터 8절까지가 계측의 반복과 함께 인과관계에 따라 구조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즉, 5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근거나 원인이 되고, 지혜의 부족은 두 가지 권면의 근거나 원인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여 그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6절, 믿음으로 구하라.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이는 구하는 방향과 관련이 있고 구하는 방식인 믿음으로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방향, 구하는 방식,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권고 각각에는 그 권고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인 입증이 뒤따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의 권면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확증이 있을지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또한 일종의 문제를 포함하므로 심문, 문제, 해결책입니다. 지혜의 부족은 그가 앞으로 전하는 이러한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해결되거나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결과는, 이 지혜 부족의 결과는 이 두 가지 권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방금 본 바와 같이 실증과 함께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권고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기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신적인 것, 기도하는 것, 인간적인 것, 기도의 방식, 또는 기도의 방식,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서 그 권고를 확증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 까닭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불안정한 자로 생각하지 말라 그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5절부터 8절까지의 세부 사항, 각 세부 사항이 전체적으로 이 단락의 프로그램 측면에서 어떻게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절별로, 절 내에서, 절별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5절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인과관계 설명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명령문은 실제로 if, if 조건문이 있을 때마다 일급 조건문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관찰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일종의 기술적인 표현이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건절에서 if 절을 프로타시스(protasis)라고 하고, then 절을 아포도시스(apodosis)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타시스와 아포도시스 사이에는 항상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if 절은 항상 원인이고 then 절은 항상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제는 누구든지 진행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목합니다. 여기에는 포용성의 실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any라는 단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 누구든지 동시에 여기에는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므로 그가 말한 내용은 2절에서 내 형제로 묘사하고, 모든 기쁨을 내 형제로 여기며, 2절부터 4절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사람들로 묘사한 독자들에게 특별히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요점은 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시련을 겪는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2절부터 4절까지의 주제에 대한 확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부터 8절까지가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특히 시련을 겪는 사람들과 관련될 수 있지만, 이 지혜가 부족한 일은 아마도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의 처지는 지혜가 부족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결핍에 대한 언급은 이 진술을 4절과 연결시킨다.

이는 상황에 따른 관찰입니다. 4절을 주목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중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제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과 지혜가 부족한 것 사이에 일종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면 말입니다.

또한, 세부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 포괄적인 것, 그리고 이제 그는 여러분 중 누구라도 지혜가 부족하다면 특정한 한 가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부족한 대상은 물론 지혜인데, 이는 우리가 세그먼트 조사에서 관찰한 16절부터 27절까지의 속이는 언어의 재발과 관련될 수 있으며, 특히 18절, 22절에 나타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26. 그렇다면 지혜와 속임수 사이에는 대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을 아는 것과 대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첫 번째 권면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실증되었으니 그가 주시리라. 우리는 이 권고에 두 가지 강조점이 있음을 주목합니다.

먼저 요청이 있고, 두 번째로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관찰입니다. 여기에는 요청과 항소 대상자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청에 관해서는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받는 방법, 요청하는 방법과 다른 받는 방법, 그리고 요청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이는 특히 현재 시제인 그리스어에서 단어의 변화에 의해 실제로 암시됩니다. 즉, 현재 시제, 아마도 진행형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고 계속 묻도록 하세요. 그러면 호소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가능한 도움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기서의 실증은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논리적 관찰로 인식합니다.

물론 실증은 구조적인 관찰이지만 우리는 실증의 이중적 성격이 두 가지 이슈, 즉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결과를 포함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하여, 여기서의 그분이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이동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베푸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문맥적 연결의 관점에서 이것은 17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오직 좋은 은사를 주신다고 말할 때 선택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니라.

17절에서 말했듯이 그는 모든 좋은 은사만을 주셨는데 특히 말씀의 좋은 은사는 다른 모든 영적인 좋은 은사를 가능하게 하여 지혜와 말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즉,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혜와 말씀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제시한 우리의 의심, 즉 지혜는 야고보서 전반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인 신성한 선물이고 말씀은 신성한 선물이라는 우리의 의심을 강화합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후반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가 특수한 부분으로 이동한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그는 누가 주시는지 말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말하는데, 이는 실제 범위를 포함합니다. 우선, 누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가? 그는 누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가라고 말하며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포괄적인 범위와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푸는 방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언급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논리적인 관찰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푸십니다. 이제 여기서 단어는 하플로스(haplos)이고 RSV는 이것을 관대하게 번역합니다. 관대하다는 뜻인 한, 인색하게 반대합니다. 즉, 그는 주는 일에 아낌없이 베풀고, 베푸는 일에 관대하며,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도 아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부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이 문제는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그가 기부한 정도에 대해 다시 강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17절에서 그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일에는 범위와 태도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며 자기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의 태도와 헌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관대하게 긍정적인 것과 비난하지 않는 부정적인 것 사이에 대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부자를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부자 사이의 대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부자 모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관대하게 주십니다. 반면에 그분은 적어도 부자와 암묵적으로 대조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어진 선물과 관련하여 여기에 식별된 물건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저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맥상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꾸짖지 않고 관대하게 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권고는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받는다는 확신으로 입증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이고 원인입니다. 묻는 결과는 당신도 역사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종의 웅변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너무나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는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방식이나 방식과 관련된 두 번째 권고를 제시합니다. 이제 내가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권고는 기도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RSV는 이 권고와 이전 권고 사이에 대조 요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6절에 있는 RSV의 첫 번째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어에서 매우 약한 접속사인 *de*를 반대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즉, 5절에서 말한 것과 지금 6절에서 말하는 것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제 대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관찰이다.

즉, 만약 여기에 있어야만 한다면, 야고보가 5절에서 말한 것과 그가 앞으로 6절에서 말하려는 것 사이에 대조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가 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앞서 말한 잘못된 추론, 즉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이라는 잘못된 추론과 대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구하는 문제이고,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전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전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추론과 잘못된 결론에 대비하여, 인간의 태도, 인간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대조적으로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권고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고민을 재발을 통해 대조적으로 강조한다. 그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소극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대조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같은 의미이므로 여기서도 그 생각이 반복됩니다. 사실 그는 배타적 범위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이 권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에 대한 설명과 5절에 나오는 기도의 결과에 대한 선언의 결과,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올바른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구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대로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베푸시는 분의 역할, 즉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더욱이, 의심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잘못된 개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항상 여기서 문맥과 연결을 시도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것은 또한 선하고 온전한 은사가 모두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속임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16절과 17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내가 말했듯이 여기서 의심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으며 정확히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구절에서 의심에 관해 염두에 두셨습니다. 돌이키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돌이키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 그분은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양면성을 가지시며, 그분은 선과 악 모두에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종류의 관념, 그런 종류의 의심은 하나님이 여기서 의심에 관해 염두에 두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증은 실제로 의심하는 사람의 성격과 의심의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이중적입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여기서 병렬성을 주목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증되었으며, 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실증은 의심하는 자의 성격과 의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의심하는 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정체성의 측면에서 그는 의심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그리스어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의심하는 사람, 즉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는 의심의 습관이나 지속성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의 측면에서도 이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이중 마음을 가진 딥수소스(dipsuxos)는 문자 그대로 번역될 수 있으며 두 영혼, 두 마음을 가지며 내부 투쟁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관찰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제안됩니까? 내부 투쟁, 이중 마음, 반대 세력이 사람 내부에서 작용하고 모든 면에서 불안정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그의 모든 방식에서 불안정한 포괄적인 범위를 가리키며 실제로 6a절과 관련된

일반화를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즉, 기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그러한 사람은 단순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6a 절과 관련된 일반화를 포함합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기도, 특히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맥락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제 불안정에 대한 이 언급은 3절과 4절의 굳건함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굳건함을 이루는 줄 앎이니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한 12절의 인내로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10절과 11절에서 부자의 멸절과 멸절의 연속일 수 있느니라. 부자는 자기의 비천함을 자랑할지니 이는 꽃과 같으니라 풀밭에서 그는 죽을 것이다. 부자도 그와 같이 추구하는 중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은 5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고 그의 관대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면, 이 의심하는 사람은 대조적으로 밀려가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바람에 밀려,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은 한마음이지만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관대하심에 흔들림이 없으시며 이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정함이 없으시니라

그러나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의심하는 사람과 바다의 파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인 비교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불안정합니다. 마치 파도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이는 아마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변곡은 수동적입니다. 이는 이러한 파도가 바람에 의해

밀려나고 흩어지는 파도처럼 외부의 힘에 작용하고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교를 통해 이 사람이 자신 외부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동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의심의 결과는 주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포함됩니다. 원인은 의심이고 결과는 주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불안정하며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요동하는 사람이므로, 자기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이전 구절과 이중 대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각 차원에는 실제로 긴장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확언과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이 사람에게 대하여는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음과 가정 사이에도 대조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가정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받기 위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가정과 대조됩니다.

자, 변곡에는 물론 현재 명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가정에 대한 성향을 언급할 수 있는 그리스어에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실제로는 경고해야 할 추측에 대해 추측하는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작가는 지혜의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지혜를 받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이든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관찰 중 일부입니다. 여기 이 세 구절, 음, 실제로는 네 구절에 대한 상세한 관찰이 있습니다. 이곳은 잠시 쉬어가기에 적당한 장소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상세한 관찰에 대한 두 번째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분석, 실제로는 작은 구절의 생각이나 생각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부분 조사, 야고보서 1장 및 야고보서 1:5-8에 대한 자세한 관찰입니다.